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NOVEMBER
Vol.238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VER STORY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삼정KPMG

Global Leader!

우리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26개국 30개 KPMG 오피스에 Korea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GKP Conference를 개최하며
KPMG Global Network와의 긴밀한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로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믿음직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NOVEMBER 2022 Vol.238
삼정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People First 20
GFC 11층, 27층, 29층 스마트 오피스 오픈…
마침내 GFC 내 모든 업무 공간 스마트 오피스로!

삼정人터뷰 24
2022 GNPC!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의 협업과 교류의 장

인재양성소 26
영국 & 미국, 원하는 나라에서 즐긴 2주의 시간
FY22 S.Manager 승진자 해외연수 스토리

KPMG Story 28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삼정인이 생각하는 '프로'는 어떤 모습일까?

이동규의 두줄칼럼 30
당신의 관점(觀點)

心 Care 32
분노의 진짜 얼굴

Samjong News 34
삼정KPMG, 'KES 2022'에서 ESG 행사 공동 주관 外

건강한 성장

04 Issue Focus Ⅰ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2022 삼정KPMG GKP Conference'

06 Issue Focus Ⅱ
나라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08 Emerging Trends
KPMG 2022 CEO Outlook
불확실성 시대, 글로벌 CEO의 경제 전망 및 성장 전략은?

10 Market Reader
미래를 바꿀 3색 바이오 시장,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12 Team Story
Future Audit 리딩하는 국내 No.1, IT Audit본부!

14 Client+
관광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카지노 전문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6 Expert's Advice
ISSB 공시기준 원활한 도입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7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04p

12p

20p

26p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기업 Globalization 위한 네트워크 강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2022 삼정KPMG GKP Conference'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2022 Global Korea Practice Conference(이하 '2022 GKP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만큼 각국의 전문가들은 GKP Network의 긴밀한 협업을 약속하고, 고객의 가치 창출과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GKP Network 협력 강화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삼정KPMG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전 세계 26개국 30개 KPMG 오피스에 Korea Desk를 설치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가을마다 Global Korea Practice Network와의 협업 강화 및 현 이슈 진단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GKP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021년은 온라인을 통해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후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3년 만에 비로소 대면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 올해로 11회째에 접어든 GKP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KPMG 파트너 및 멤버, Korea Desk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오랜만에 대면으로 GKP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2023년 감사 시장의 큰 전환기를 맞아, 어떻게 협업하고 성장해 나갈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컨퍼런스 기간 중 고객 방문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함께 모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삼정KPMG의 지속적인 성장은 GKP Network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GKP Network와 더 큰 성장과 협력을 이뤄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역대 최다 참석 & 고객사 방문하며 소통 강화

2022 GKP 컨퍼런스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부터 시작됐다. 지난 10월 31일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체코 6개국의 Korea Desk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가별 투자 환경 및 향후 진출 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세미나 진행 중에는 신청 기업에 한해 각국의 Korea Desk와 1:1 개별 미팅을 통해 관심 국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60개 기업의 110여 명이라는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울러, GKP 컨퍼런스가 열린 주에는 Korea Desk 현지 전문가와 각국 파트너들이 고객사를 방문해 이들이 안고 있는 이슈와 해외 진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올해는 75개의 고객사를 방문했다.

11월 1일에는 삼정KPMG 본사 교육장에서 메인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및 신규 기회 창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GKP Network의 최신 뉴스 소식을 전한데 이어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불확실성의 시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주요 이슈 및 인사이트 등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제적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2023년 대대적으로 변화될 감사환경과 향후 협업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폴란드 Korea Desk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독일 Korea Desk의 리더로 새로 부임한 Barbara Sillich 파트너는 "네트워크 교류를 위해서는 대면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각 나라의 상황과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하는 등 더욱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며 "독일은 유럽 진출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독일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GKP 컨퍼런스에 참여한 인도의 Mayank Goel Director는 "GKP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기업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타 국가의 Korea Desk들과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인도 정부는 다양한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 중이라, 지금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본다. 한국 기업이 다양한 기회를 찾아 인도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또 적극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22 GKP 컨퍼런스'로 한층 강화된 GKP Network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현지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GKP Network를 확대해 나가고, 각 지역 이슈에 따른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Contact Us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Tel. 02-2112-0788
E-mail. kshin@kr.kpmg.com

BD&Markets 정재완 S.Manager
Tel. 02-2112-3176
E-mail. jaewanjung@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GKP 컨퍼런스 특집 II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잡아라!

나라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멕시코 Korea Desk

원산지 조건의 충분한 타당성 검사와 적절한 인력 투입 고려해야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의 전기차 보급 시장이 앞당겨졌고, 이로 인해 북미 전기차 최종조립, 전기차 부품 북미 의무사용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멕시코의 입지적 위상이 증진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혹시 멕시코 진출을 고려한다면 원산지 조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사와 숙련되고 저렴한 멕시코 인력 활용, 그리고 이익의 최소 10%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거나, 강성노조와 매년 단체협약을 맺는 등에 대해 진출 초기부터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Contact: 멕시코 Korea Desk 김태우 이사 (taekim@kpmg.com.mx)

높은 GDP 성장률과 중국 대체 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

코로나19로 베트남 내외수요 감소로 경제 성장 둔화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제조 활동 재개와 소매, 운수업, 창고업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영향에도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GDP 성장)해왔으며, 향후에도 동남아 지역 내 타 국가들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맞물려 중국 내 임금 상승 등으로 글로벌 제조사들은 대체 시장을 모색 중이며, 대체 시장으로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 Korea Desk

*Contact: 베트남 Korea Desk 이준석 Director (Junseoklee2@kpmg.com.vn)

직접 투자 위한 미국 내 생산 확장 고려해야 할 때

지난 8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현재 미국에 진출했거나, 또는 투자 예정인 한국 기업 간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 이 법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기업 최저한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등의 기회 요인이 많지만, 미국 내 조립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대당 최고 $7,500의 보조금의 받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산업 경제 재건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생산으로 확장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 Korea Practice

*Contact: Atlanta Office 홍정기 파트너 (chong@kpmg.com)
LA Office 곽 훈 파트너 (hkwak@kpmg.com)
New York Office 이경렬 파트너 (KKlee@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GKP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10월 31일에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체코, 베트남, 뉴질랜드 총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마다 최신 이슈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호에서는 6개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를 현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본다.

뉴질랜드 Korea Desk

규제가 적고,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나라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적고, 양도 소득세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어,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꾸준히 FDI가 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환경과 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에도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대비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교통 인프라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에 많은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건설 업체 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고급 기술과 경험이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act: 뉴질랜드 Korea Desk 김현진 S.Manager (jeankim1@kpmg.co.nz)

유럽의 심장 체코, 여러 보조금 등으로 투자 메리트 커

전 유럽에 인플레이션이 확대돼 높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용수에 대한 가격도 급상승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임금 및 인프라에 대한 장점, 그리고 입지적으로 유럽 중심지에 위치한 체코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아울러, R&D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제조)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또한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 중에 있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Korea Desk

*Contact: 체코 Korea Desk 박상진 S.Manager (sangjinspark@kpmg.cz)

저탄소 배출 & 미래 먹거리 산업에 주목

현재 캐나다는 저탄소 배출 정책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다. 한 가지 예로 EV 배터리 산업은 저탄소 & 미래 먹거리라는 국가적 지향점에 매우 부합해 SIF (Strategic Innovation Fund)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SIF 지원을 받을 경우 자본적 지출(CAPEX) 대비 상당 부분(10~30%)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신규 진출 기업은 유리한 조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R&D에 대한 세제 지원, 각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캐나다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한편, LG Energy Solution 온타리오주 진출과 관련해 캐나다 KP팀이 SIF Application 서비스를 제공, 결과적으로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받게 되어, 이에 대해 매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캐나다 Korea Practice

*Contact: 캐나다 Korea Practice 정현철 Director (henrychung@kpmg.ca)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KPMG 2022 CEO Outlook
불확실성 시대, 글로벌 CEO의 경제 전망 및 성장 전략은?

KPMG는 매년 글로벌 CEO들의 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CEO Outlook(글로벌 CEO 설문조사 리포트)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8회째 발간된 CEO Outlook에는 전 세계 11개국, 1,325명의 CEO가 참여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CEO들이 기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올해의 CEO Outlook에는 글로벌 경영진들이 바라보는 향후 3년간 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올해 조사에서는 글로벌 CEO들의 우선순위 변화가 나타났다. 글로벌 CEO의 86%는 향후 1년 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CEO의 58%는 경기 침체가 비교적 짧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1%는 경기 침체가 향후 1년간 회사 수익에 최대 10%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CEO들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응답률은 2022년 8월에는 71%까지 상승하며, 팬데믹이 본격화되었던 시점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한 CEO의 85%는 향후 3년간 자사의 성장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글로벌 CEO들은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M&A에 높은 관심을 보인 응답자는 47%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CEO의 76%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응답자의 81%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3년간 기업 성장에 위협이 되는 주요 리스크로는 혁신 기술, 운영적 측면, 규제적 측면을 선정했다. 환경변화와 기후변화, 기업 평판 리스크 등도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글로벌 CEO가 중시하는 3가지 키워드 … '기술(Tech) · 인재(Talent) · ESG'

올해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CEO들은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었다. 가속도를 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성장의 기회로 연결시키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며, ESG 경영을 위해 기업이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CEO의 모습이 부각됐다.

빠른 기술 환경 변화는 혁신을 불러일으키지만, 기업의 리더 관점에서는 기술 변화를 리스크 요인으로도 보고 있다. CEO들은 기술적 리스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디지털 투자를 중시하고 있다. CEO의 72%는 시장 선도자(First-mover) 또는 빠른 추격자(Fast-follower)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디지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CEO 4분의 1 이상이 향후 3년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사이버 보안을 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중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CEO 중 77%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요소로 정보 보안을 꼽았다. 72%가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13%에서 2022년 24%로 증가했다.

CEO들은 조직 운영의 최우선 전략 중 하나로 인재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조직 성장을 위한 운영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CEO들은 핵심 인력을 보유하고 유치하기 위해 직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를 고민하는 '직원 가치 제안(Employee Value Proposition)'을 1순위로 들었다.

글로벌 CEO 74% … '디지털과 ESG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불가분하게 연관'

ESG 시대를 맞이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CEO의 고민도 깊어졌다. CEO의 45%는 ESG 전략이 기업의 실적에 기여했다고 답한 동시에, 69%는 ESG 공시 및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고객, 임직원, 투자자,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했다고 했다. 글로벌 CEO들은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전문지식과 기술 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22%는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ESG 관련 솔루션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CEO의 17%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8%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CEO의 74%는 디지털과 ESG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서로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ESG 경영에 대하여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도 대응할 수 있다.

KPMG 글로벌의 빌 토마스 회장은 "글로벌 팬데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의 난관이 짧은 시간 내 발생하며 혼란을 야기했지만, 글로벌 CEO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회복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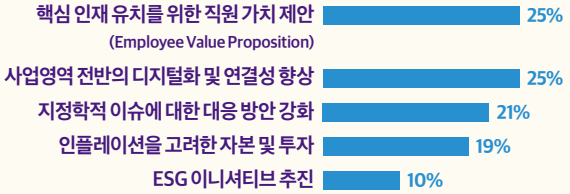
CEO의 72%는 적극적인 디지털 투자 전략 보유

77%

CEO의 77%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요소로 사이버 보안을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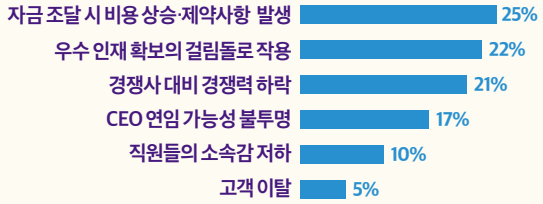
Talent

Q. 향후 3년간 기업 성장을 위한 조직 운영 전략의 우선순위는?



ESG

Q. 이해관계자의 ESG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사항은?



CONTACT US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el. 02-2112-6744
E-mail. hyojunglee@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미래를 바꿀 3색 바이오 시장,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약학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적용되는 산업 범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래를 바꿀 3색 바이오를 토대로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본다.

바이오, 경제성장 촉진 및 사회문제 해결 위한 돌파구

바이오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오는 ICT(정보통신기술)·NT(나노기술) 등과 결합해 전 산업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됐다. 또한 바이오는 고령화, 자원부족, 환경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바이오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전략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혁하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은 생물공학 육성법 제정 외에도 2022 회계연도 정부 R&D 예산 배분 시 고려할 5대 우선 분야로 공공보건 안보 및 혁신을 제시했다. EU와 일본도 바이오 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 및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확대에 따른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3색 시장

바이오산업은 크게 3색 바이오 시장으로 구분된다. 레드 바이오는 생명공학이 의·약학 분야에 응용된 개념이고, 그린 바이오는 생명자원 및 정보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식품, 자원 등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일컫는다. 화이트 바이오는 탄소자원을 활용해 탄소중립 구현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산업 소재의 안정적 생산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공학 기반의 에너지·화학 바이오 분야이다.

레드 바이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 시장은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신약 개발이 시장을 견인해 연평균 8.4%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에 의약품 제조·연구 수탁을 위한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와 같은 바이오 서비스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린 바이오의 경우, 최근 자원·환경 등 글로벌 난제에 대한 대안으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시장 내 9가지 핵심 시장은 지속 성장 중

레드 바이오 (Red Biotechnology)

① 바이오의약 시장
- 바이오 신약이 바이오의약 시장을 주도하여 2017년부터 연평균 8.4%로 성장세

② 바이오서비스 시장
- 의약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제조·연구 수탁 활동이 증가하면서 바이오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2.8%로 성장세

③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
- 레드 바이오 시장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연평균 성장률은 18.0%로 가장 높은 편

그린 바이오 (Green Biotechnology)

④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시장으로 각광받아 연평균 8.7%로 성장 중

⑤ 대체식품·메디푸드 시장
- 기후변화, 자원고갈 및 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13.1%로 성장

⑥ 종자 시장
- 분자육종, 디지털 육종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연평균 9.5%로 성장세

⑦ 동물용 의약품 시장
- 생물학적 제제 중심의 동물약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8.0%로 성장

화이트 바이오 (White Biotechnology)

⑧ 바이오 연료 시장
- 전 세계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2011년부터 연평균 6.5%로 성장
- 국내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2011년부터 연평균 16.8%로 성장

⑨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 전 세계 시장 성장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1.7%로 성장
- 동기간 국내 시장 성장률은 13.5%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로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마이크로바이옴, 고령화 및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대체식품 시장이 존재한다. 끝으로 화이트 바이오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국내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시장 이슈 및 대응 방향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부상하는 바이오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이슈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투입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생산설비 구축 시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여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영위할 경우 대규모 자금 투자가 발생하여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술력이 선도국가 대비 기술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바이오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낮은 사업화 확률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경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매출 기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밸류체인 전반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 혹은 기술 보유 기업과의 제휴 전략을 병행하는 등 전략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다양한 사업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이뤄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Life Science 산업리더
변영훈 부대표
Tel. 02-2112-0506
E-mail. ybyun@kr.kpmg.com

경제연구원 정미주 선임연구원
Tel. 02-2112-4802
E-mail. mijujung@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Future Audit 리딩하는 국내 No.1, IT Audit본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 운영 시스템의 전산화가 가속화되고, 그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이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관련 통제 활동 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전산감사(IT Audit, IT 감사)가 매우 중요해졌다. 삼정KPMG는 IT Audit본부 운영을 통해 감사본부의 IT 감사를 지원하며,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Audit본부 리더들이 모여 환하게 웃음 짓고 있다

Team Story

IT 감사 중요성 확대,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 후 내부통제 도입해야

IT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IT 감사는 외부 감사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특히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강화되고, 각 기업들의 IT 시스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IT 환경에 대한 내부통제 감사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의 상장 기업들에 대한 IT 통제가 감사 대상이 됨에 따라, 많은 이슈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중 IT 변경 모집단 미확보, 슈퍼유저 권한 관리, 데이터 직접 변경 통제 미비 등이 감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조 이상 대형 상장사에서 적용하는 내부통제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도입에 앞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IT 환경상 실질적으로 위험한지, 어떤 경우에 그 위험이 실현되는지 등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하고, 위험발생의 원인(Root Cause)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회사의 능력 범위에서의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변경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 설정을 통해 모집단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제어 툴, 변경관리 시스템 등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회계사와 IT 전문가의 융합 시너지로, 높은 품질의 IT 감사 서비스 제공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으로 회계 및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역시 디지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재무보고 관련 거래 처리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IT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IT 감사 역시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삼정KPMG IT Audit본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IT 인프라에 대한 IT 일반통제, IT 자동화통제 및 Journal Entries, Data & Analysis(D&A)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본부의 IT 감사를 적극 지원 중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감사 시즌에는 IT Control Test와 D&A test 등으로 외부감사를 지원 중이며, 비감사 시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평가 용역에 대한 IT 통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재무보고 관련 거래 처리가 이뤄지는 IT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외부 아웃소싱한 경우 외부 IT 서비스 조직의 통제를 대상으로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인증 보고서 발행 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IT는 매우 광범위한 업무 분야로 단편적인 IT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IT Audit본부는 회계사와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합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이 두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높은 감사 품질을 제공할 수 있고, IT에 의존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위험을 식별하는 데 차별화된 강점을 지녔다.

IT Audit본부 주요 서비스

외부 감사 중 IT 감사 업무 지원

- IT 일반통제, 및 응용통제 설계 및 운영 평가, Data 분석 및 테스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평가 IT 통제 분야 지원

- IT 일반통제 및 응용통제 구축, 설계 및 운영 테스트

IT 서비스 조직 통제를 대상으로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인증 보고서 발행

자동통제 및 데이터 감사 확대 등 IT 감사 지원으로 Audit Quality 향상 기여할 것

IT Audit본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상장사를 대상으로 IT 일반통제 감사에 집중해 감사본부의 외부감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상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거래처리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ESG는 기업들이 산출해 제공하는 관련 데이터/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 환경 아래, IT Audit본부는 프로세스 수준의 자동통제(Automated Control) 및 데이터 감사 확대를 통해 감사팀에 대해 충분한 IT 감사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Audit Quality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IT Audit본부, 앞으로의 각오는?

서윤석 상무
(금융산업팀)
yoonsukseo@kr.kpmg.com

금융팀은 기존 금융산업부터 인터넷금융 기업을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고객에 대해 IT 통제, 데이터 분석/검증 및 데이터 변환(XBRL)에 대해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를 활용한 선도적인 감사방법론, D&A 기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금융 IT Audit No.1으로서 모두가 찾는 팀이 되겠습니다!

박창남 상무
(전자정보통신팀)
changnampark@kr.kpmg.com

전자정보통신팀은 하이테크 제조업체와 New Digital & Platform Biz(e-커머스,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를 영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와 Advisory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업무 환경에 대한 IT Audit을 선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안세진 상무
(유통·소비재 산업팀)
sejinahn@kr.kpmg.com

최근 소비자 산업 시장이 비대면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주문, 출고, 입고, 배송에 걸친 일련의 업무 처리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유통 산업의 I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업종 및 관련 IT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IT 감사 및 Advisory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관광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카지노 전문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는 2005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서울(2개점)과 부산(1개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목적에 따라, 관광산업 성장 지원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lient+

대한민국 관광산업 성장 위해 힘써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 쇼핑, 호텔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GKL은 매년 약 170만 명(2019년 기준)의 카지노 방문객을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매출액의 약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 한국 관광산업 인프라 발전의 디딤돌 역할도 수행 중이다.

공기업으로서의 공적 역할 수행과 관광·카지노 산업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카지노 현장 견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GKL의 노력으로 2020년 국가품질혁신상(인재개발)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정부 포상을 받았다.

대내외 니즈에 맞춘 경영혁신 전략체계 설계

GKL은 매년 정부정책과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대내외 니즈(Needs)를 수렴하여 경영혁신 전략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기관의 고유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카지노 산업의 혁신성장 주도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혁신 채널 운영으로 매년 약 400여 건의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참여를 위한 GKL Eyes(국민참여혁신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혁신 협업 활동으로 모바일 여권기반 신분인증 SMART PASS 시스템 구축(로드시스템)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K-테스트베드 지원 (민간기업 실증지원),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1년 산업기술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아름다운 세상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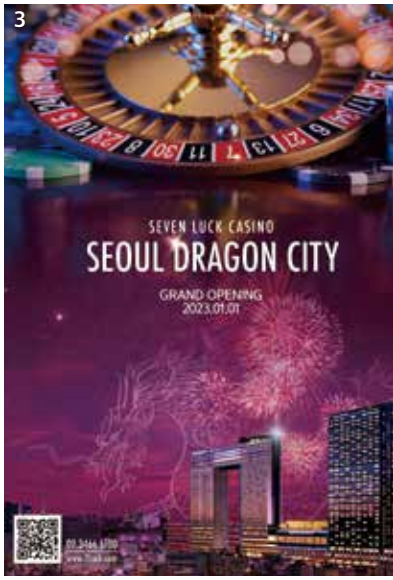
GKL은 관광·레저 공기업으로서의 관광이 주는 가치와 경험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문화 홍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소외 이웃 지원 등 공적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매년 매출액의 일부를 출연하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GKL 꿈·희망 봉사단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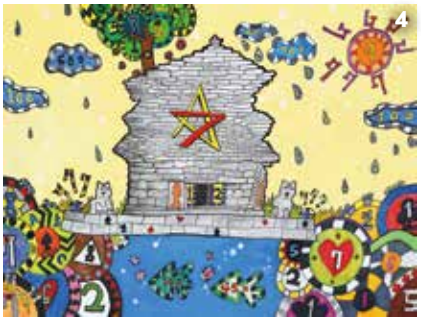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그림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상작가에게는 민간기업((주)디스에이블드)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노력을 했고, GKL ON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제품 개발지원과 전문 멘토링, 판로확대 등의 성장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강남구), 스마트케어 일자리 발굴(중구), 관광 활성화(부산진구) 등을 수행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으로 국민경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2022 R.E.B.O.R.N GKL!'

2020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고, 모든 국가는 거리두기 등 각종 규제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모든 업종 중에서 관광·카지노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2021년 9월 취임한 GKL의 김영산 사장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경영방침으로 R.E.B.O.R.N을 내세우고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강화 등 매출 회복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1일에는 기존의 세븐럭 카지노 강북 힐튼점이 영업을 종료하고 용산에 위치한 서울 드래곤시티로 이전하는 등 두 번째 창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GKL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1. 카지노 산업 ESG경영 포럼 **2.** 그랜드코리아레저 본사 전경 **3.** 세븐럭 카지노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프닝 홍보 이미지 **4.**2022 발달장애 공모전 대상(분황사석탑과 세븐럭카지노) **5.** 2021 발달장애 공모전 대상(카지노에서의 하루)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SSB 공시기준 원활한 도입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ESG 공시기준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대응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려 한다.

Q1 ISSB 도입을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한국의 경우 각계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대응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다행히 지난 2021년 8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한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제언서를 발간하고,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4년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ISSB 기준을 제정하는 전 세계 14명의 위원에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특수성 반영에 도움도 얻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차원의 ESG 정책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Q2 현재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SG 공시 준비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에게 국제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공시 규제는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ESG 공시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고민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ESG 공시 로드맵을 수립해 기업들이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SSB 기준 도입을 통해 국제적인 ESG 공시 강화에 대응하되, ISSB 기준에서 허용하는 국가별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연관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ISSB와는 별개로 중소기업용으로 단순화된 공시 기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조선업 등)에 대한 공시 매트릭스 보완, 다양한 이종 업종을 연결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시 이슈도 미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기후 영향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적용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실정에 맞는 실무적인 모범기준과 사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시 기한 단축을 위해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점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개 및 검증 시점의 변경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무 정보 공시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공시보고서 작업의 편리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S SEC 기후공시 강화법안 중 몇 가지 조항들은 시사점이 큽니다. 공시 의무화와 제3자 인증 시점을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소규모기업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 것과 스코프3(Scope3) 탄소배출량 공시 관련해 다양한 실무부담 완화조항이 있는 점을 참고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김진귀 전무
Tel. 02-2112-0223
E-mail. jinkwi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9월 26일 게재된 내일신문 '[김진귀의 ESG 경영]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공시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pert's Advice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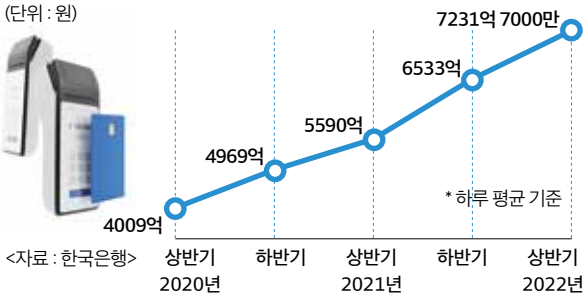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새롭게 탄생한 용어와 통계 지식을 통해 이슈를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 이번 호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브랜드를 인수해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브랜드 애그리게이터와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인 카플레이션에 대해 배워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7,000억 돌파… 사상 최대

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은 7231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10.7% 증가한 규모로, 이용 금액이 7,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 건수도 하루평균 2316만 8,000건으로 같은 기간 8.3% 늘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방법으로 간편 결제하는 서비스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Brand Aggregator)

미국에서 처음 탄생한 말로,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유망 브랜드를 찾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애그리게이터는 성장성이 높은 다수의 중소형 브랜드를 인수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아마존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생 조직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정글 스카우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마존 판매자 4명 중 1명꼴로 애그리게이터에 브랜드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그리게이터는 2020년 설립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스라시오과 독일에 베를린브랜즈그룹(BBG) 등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카플레이션 (Carflation)

자동차(Car)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자동차의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뜻한다. 카플레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2020년 후반부터 두드러진 현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카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비롯해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 기업들까지 신차 출시 때마다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카플레이션 현상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판매 가격을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올렸으며, 인기 차종인 모델 와이(Y)의 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약 2,666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Happy workplace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목차

People First

GFC 11층, 27층, 29층
스마트 오피스 오픈…
마침내 GFC 내 모든 업무 공간
스마트 오피스로!

20

삼정人터뷰

2022 GNPC!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의 협업과
교류의 장

24

인재양성소

영국 & 미국, 원하는 나라에서
즐긴 2주의 시간
FY22 S.Manager 승진자
해외연수 스토리

26

KPMG Story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삼정인이 생각하는 '프로'는
어떤 모습일까?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당신의 관점(觀點)

30

心 Care

분노의 진짜 얼굴

32

Samjong News

삼정KPMG, 'KES 2022'에서
ESG 행사 공동 주관 外

34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2년 달라진 스마트 업무 공간

GFC 11층, 27층, 29층 스마트 오피스 오픈… 마침내 GFC 내 모든 업무 공간 스마트 오피스로!

삼정KPMG가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했다. 지난 7월 18일 9층, 10층 오픈에 이어 10월 24일에 GFC 11층, 27층, 29층 오픈식을 가졌다. 이로써, 모든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새 단장하게 됐다. 지금부터 달라진 삼정KPMG 업무 공간을 소개한다.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

Common Ground
- 낮은 파티션으로 구획된 1인 업무 공간

Library
- 파티션으로 구획된 1인 업무 공간
- 집중력 강화를 위한 도서관 형태의 업무 공간

Open Table
- 개인 업무 좌석 배치
- 팀별 업무 및 가벼운 협업 진행 가능

Shelter
- 높은 파티션으로 구획된 개인 좌석
- 개인별 Privacy 강화

Bar Table
- 창가 쪽에 배치된 1인 업무 공간

스마트 오피스로 변화된 공간의 혁신!

People First! 인재존중 문화를 추구하는 삼정KPMG의 GFC 내 모든 사무 공간이 새 단장했다. 그동안 삼정KPMG는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GFC) 8층을, 2020년에는 GFC 28층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다.

2022년에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GFC 내 삼정KPMG 업무 공간 전체를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했다. 지난 7월 18일에는 GFC 9층과 10층을, 이어 10월 24일에는 GFC 11층과 27층, 29층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다. 이로써, GFC 내 삼정KPMG의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새 단장한 셈이다.

지난 10월 24일 GFC 11층, 27층, 29층 오픈식 현장에는 김교태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등이 참석해 오픈을 축하했다. 특히 오픈 당일에는 스마트 오피스 오픈을 기념하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시루떡, 햄버거 등의 간식을 제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형태 업무 공간, 내가 원하는 좌석으로!

삼정KPMG의 스마트 오피스 공간은 구성원들의 편의성과 자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구성원들의 선호에 따라 층과 좌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에 도서관형, 칸막이형, 카페형, 라운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Function이나 본부 구분 없이 층, 원하는 형태의 좌석을 이용하도록 모든 층에 예약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Senior Director 이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Hotel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1

구성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사물함 공간도 20% 확대

구성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구축됐다. 사용자들의 좌석을 우선 고려해 파트너와 직원의 업무 공간을 구분 지었고, 라운지와 OA룸, 사물함 등의 위치도 사용자 동선을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아울러, 구성원들의 편리성을 위해 사물함은 5개 층 기준으로 1,536개에서 1,852개로 기존보다 약 20% 확대 구성했다.

휴식과 소통을 위한 휴게 라운지

스마트 오피스 5개 층에는 임직원의 쉼터가 되어줄 휴게 라운지 공간을 각 층마다 마련했다. 오픈된 천장으로 보다 개방감 있게 마련된 라운지에서는 캐주얼한 회의와 업무 진행도 가능하다. 특히, 고급 커피머신과 다과 등이 준비되어, 업무 중 지친 심신을 달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회의실… 기존보다 4배 증가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려한 프로젝트 룸과 회의실이 마련되어 팀원 간 활발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회의실은 기존 21개 보다 약 4배 증가한 85개의 공간으로 마련됐으며, 모든 회의실에는 55인치 모니터가 설치됐다. 특별히 함께 모여 협업하는 공간인 회의실에 보다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구성원 자녀 이름을 부여하는 회의실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300여 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총 134개의 자녀 이름이 회의실 명칭으로 선정됐다.

한편, 올해 새롭게 변화된 삼정KPMG 스마트 오피스가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FM)학회가 주최하는 '한국FM대상'에서 '스마트 오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을 맡은 다원앤컴퍼니와 운영회사인 삼정KPMG가 함께 이 상을 받았으며, 이로써 트렌디한 감각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 오피스로 인정받았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는 수상이다.

앞으로도 삼정KPMG는 업무 공간의 혁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고 협업을 이뤄가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1. 스카이 뷰가 돋보이는 휴게 라운지 2. 협업 공간인 회의실에는 55인치 모니터를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3. 개방감이 돋보이는 업무 공간으로, 각 좌석에 모니터가 설치됐다 4. 컬러풀한 색감과 개방된 천장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휴게 라운지

삼정인, 스마트 오피스 어떤가요?

"여러 층의 다양한 오피스 공간에서 원하는 좌석에 앉아 일하다 보니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29층의 별 휴게 라운지는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뷰를 자랑해 때때로 동기들과 창밖을 보며 휴식 시간을 갖곤 합니다!" **- 민혜진 Analyst (Deal Adv7)**

"개방적이고,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 중앙도서관 같은 느낌을 받아 친숙했고, 덕분에 신입으로서 낯선 업무에 대한 부담도 한결 덜 수 있었어요.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욱 편하게 선배 회계사들과 소통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 김영한 Associate (ICE3)

"사무실 공간이 매우 밝아졌고, 모니터가 설치된 좌석이 많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또 그날그날 기분과 업무에 맞춰 앉고 싶은 좌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각 층에 휴게 라운지가 있어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 강수용 S.Analyst (Deal Adv1)

"새로 오픈한 스마트 오피스를 보니, 지난 8월호 <Channel>에 소개된 '심각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 폴 발레리'라는 글귀가 새삼 다르게 다가왔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중에도 여유를 느낄 휴게 라운지, 답답한 사무실에서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으로, 원하는 좌석에서 업무가 가능해 집중도도 더욱 높아졌어요."
- 신성용 Associate (IM2)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울러, 이전보다 쾌적한 근무 환경과 오픈 테이블을 포함한 회의 공간이 확대되어, 급한 회의와 업무 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민수 Manager (IM3)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2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의 협업과 교류의 장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2022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이하 '2022 GNPC')가 개최됐다. GNPC는 144개국 KPMG Member Firm의 신임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삼정KPMG는 총 38명의 신임 파트너 가운데, 35명이 참석했다. 2022 GNPC에 참석해 전 세계 KPMG 신임 파트너들과 교류하고 돌아온 신임 파트너 4인을 만나, 그 생생한 후기를 들어본다.

KPMG Lakehouse 건물과 전경

'Together' 가치를 되새기고, Vision 달성을 다짐했던!

2022 GNPC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환승 비행기를 놓쳐, 가족들과 JFK 공항에서 무려 9시간을 대기하고 어렵게 올랜도에 입성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는 찰나, KPMG Lakehouse를 보고 난 이후에는 좋은 기억만 가득하게 되었네요. 공항에서 2~30분 거리에 위치한 KPMG Lakehouse의 KPMG 로고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밝게 빛났고, Conference 내내 좋은 시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한 분들의 노력이 곳곳에서 느껴져 감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야인 ESG에 관한 강연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모든 강연에서 KPMG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Together'의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KPMG 파트너들이 KPMG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모습은 우리와 같다는 생각에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파트너 수가 약 700여 명인데, 그중 미국과 캐나다, 영국 그리고 한국 순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이 KPMG 글로벌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삼정KPMG Vision과 나아가 KPMG의 Vision 달성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신사업과 다각화되는 Biz 환경을 고민한 시간

이번 기회에 KPMG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일례로 참석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정에 참여하도록 공항에서부터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마련한 세심한 배려가 감동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행사인지라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해 코로나19로 세계적인 Lockdown과 그 기간을 희생과 인고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모습 등 그간의 글로벌 뉴스를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불확실한 시장 환경 등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저만의 일이 아닌 KPMG 모든 일원이 함께 극복해온 시간이라는 생각에 뭉클했고, 그 속에서 성장한 KPMG 구성원이자 신임 파트너로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KPMG 파트너들과 현재 또는 향후 계획하는 사업의 성격과 대상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사업 및 전략이 다각화되는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성장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마치 생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접목시키며 진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well-functioning 해가고 싶습니다.

CS 파트너들과 다녀온 데이토나비치에서,
구자면 상무와 함께!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Welcome Dinner에서 빌 토마스 회장과 함께

새 에너지를 얻고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2022 GNPC' 행사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KPMG의 리더십과 여러 신임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모든 강연이 인상 깊었지만, 마지막 세션의 KPMG 글로벌 빌 토마스 회장의 'Our moment is'의 강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빌 회장이 입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그 시간과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GNPC를 통해 만남을 시작하고, KPMG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citiwalk와 해리포터 구역을 KPMG가 통째로 빌려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KPMG의 스케일에 새삼 놀랐고 이때 더욱 다양한 파트너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특히, 네덜란드와 미국, 칠레, 브라질 등의 파트너들과 대화하며, KPMG에 대한 애착과 강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저 역시도 향후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임 파트너로서 후배들에게 솔선수범하며 좋은 리더가 되고 싶고, 매 순간을 충실히 하며 법인 성장에 더욱 기여하고 싶습니다.

KPMG 위상 높이는 데 기여하고파!

설레는 마음과 기대를 안고 GNPC에 참석했는데, KPMG Lakehouse에 도착한 순간 제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로 구성된 Lakehouse의 시설과 잘 준비된 행사는 KPMG 소속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에 충분했어요. 2박 3일간의 일정 내 준비된 짜임새 있는 강연과 강연 이후 연회는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첫 세션에서 KPMG의 모든 파트너들은 고객, 동료들과 교류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빌 토마스 회장의 연설은 KPMG의 핵심 가치인 'Together', 'For Better'를 되새기며 나아갈 바를 알려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2일 차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만찬은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KPMG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생생히 공유받았고, 저 역시도 우리 법인의 'Vision 2025'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KPMG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후배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GNPC 강연장 모습

강연 시작을 알린 빌 토마스 회장의 연설

2022 GNPC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UNITED KINGDOM

영국 & 미국, 원하는 나라에서 즐긴 2주의 시간

FY22 S.Manager 승진자 해외연수 스토리

법인이 준 깜짝 선물

코로나19로 생각지 못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다녀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영국 런던으로 다녀왔는데요, 숙소 위치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근처라 사방이 막혀 갇혀 있기도 했고, 기대했던 이벤트가 취소되고, 여행 중 폭우를 만나기도 했지만, 선물 받은 휴식 중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생각될 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또한, 영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 로마에서부터 아시시라는 소도시, 근교의 사이프러스 길까지 차로 운전하며 여행을 즐겼답니다.

연수 동안 법인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아마도 올해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타워 브리지 앞에서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사이프러스길에서

김주인 S.Manager (IGH)

스위스에서

런던 오피스에서
문종우 회계사와

정성훈 S.Manager (Deal Adv6)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이번 연수는 설렘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먼저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EF 수강생들의 모습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한, KPMG 영국에 파견 중인 문종우 회계사를 만나 오피스도 둘러보고, 승진자와 파견자로서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지금 이 부담감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기로 함께 다짐도 했어요. 자유여행은 아내와 함께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를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스위스에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마터호른산 정상을 화창한 날씨에 볼 수 있었고, 인터라켄 피르스트 액티비티 체험, 융프라우 정상, 그 외에 트래킹도 즐겼습니다. 좋은 추억도 만들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준 이번 연수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UNITED STATES OF AMERICA

삼정KPMG는 S.Manager 승진자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리프레시를 위해 2주간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 중이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연수가 힘들었지만,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다시 해외연수를 재개했다. 올해는 총 148명의 승진자 중 134명이 참여했으며, 9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6회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영국 런던 중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다녀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의 생생한 연수 후기를 담아봤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투어에서

노재균 S.Manager (Tax4)

동료들과 연대감을 느끼며 재충전한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을 꼽자면, 동료들과 함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투어가 아닐까 싶어요! 1890년 미국 국립공원으로 선정된 요세미티는 웅장한 계곡과 절벽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자연의 압도적인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한 타 본부 동료들과 하이킹하며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주며, 새로운 연대감을 형성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한, EF 연수 역시 다채로운 액티비티와 영어 강의를 동시에 경험한 알찬 시간이었어요.
입사 후, 정신없이 달려온 제게 이번 연수는 재충전하고, 저를 돌아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주의 안식을 얻고 돌아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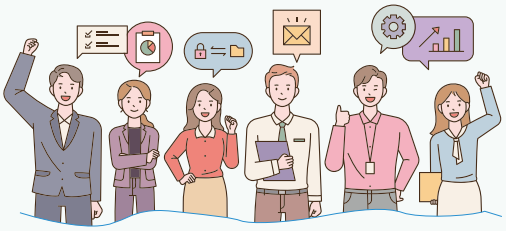
이번 연수로 2주간의 안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주는 EF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함께 온 신임 부장님들과 샌프란시스코 시내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함께 떠난 요세미티 국립공원 투어를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내 모두 가까워졌고, 국립공원에서 해가 뜨며 온 세상이 밝아지는 광경을 보며 함께 마신 커피 역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EF 연수 후 저는 누나가 사는 일리노이 미국 중부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가웠고, 미술, 음악, 자연, 음식 등 오감만족 여행이었어요. 연수 기회를 준 법인부터, 배려해준 팀원들, 한국에서 육아로 고생한 아내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리노이 여행 중

권대현 S.Manager (MCS1)

EF 수강생들과 함께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삼정인이 생각하는 '프로'는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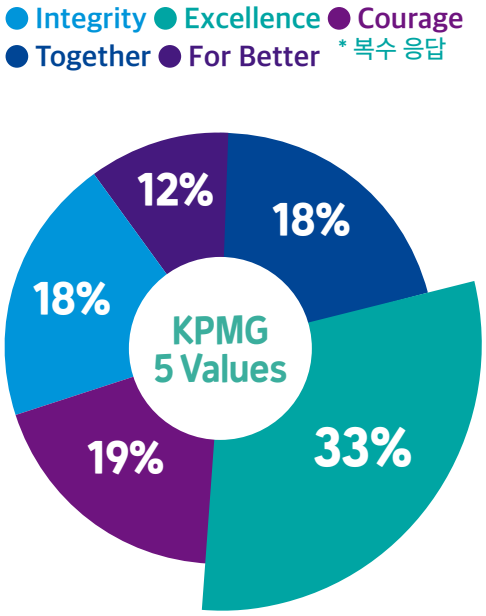
삼정인이 생각하는 프로페셔널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마지막 시리즈로 삼정인이 생각하는 프로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봤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삼정인의 생각을 공유한다.

'프로'로 성장하기 위해 실천하는 가치는?

'Excellence'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80세 되는 해인 1893년에 작곡한 최후의 오페라 '팔스타프'를 본 한 관객이 물었다. "이미 유명한 선생님이 그 나이에 힘들게 왜 또 오페라를 작곡하신 겁니까?"이에 베르디는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동안 완벽을 추구해왔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지. 때문에 분명 나는 완벽을 향해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네.'라고 답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나는 완벽을 향해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는 말에 자극받아 95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

사람들마다 프로(프로페셔널)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된다. 삼정인들에게 프로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프로가 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해 오고 있을까? 이벤트 결과 삼정인들은 KPMG 5 Values 중 33%의 비율로 'Excellence'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Courage 19%, Together와 Integrity 18%, For Better는 12%를 차지했다. 이로써 삼정인들은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PMG Story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는 사람

주영규 Senior (CM2)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허준'을 보고, 진정한 프로의 의미를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배우 전광렬이 주연을 맡은 허준은 극 중에서 과거 시험을 앞둔 상황이지만, 아픈 환자 돌보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仁術)로 환자를 섬기는, 애민정신이 가득한 진정한 프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프로는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인회계사로서의 책무는 법령에 따르는 책무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도덕적 윤리 의식까지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법령으로 정한 좁은 의미의 범주에 제한 두지 않고, 감사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정보 하나하나에 장인정신과 윤리의식을 갖고 임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본인과 동료들의 강점을 찾고,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

임민호 S.Manager (Tax1)

프로는 '자신과 동료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기회를 발견하고, 강점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상호 존중하고, 각각의 다름에서 강점을 이끈다는 'Together'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직의 성과가 창출되도록, 제가 어떻게 공헌해야 하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기여하려면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초점을 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에 늘 진심인 사람

신유경 Analyst (Deal Adv3)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본인의 일에 항상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단순한 책임감 또는 인정 욕구를 넘어, 하는 일 자체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프로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일에 대한 '진심'입니다. 저 역시도 프로가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용기 내어 앞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문민석 Associate(IM2)

'프로'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 쉽게 보이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고민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맙게도 법인에서 많은 '프로'의 지혜를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과정을 거쳐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프로들의 지혜를 본받아, 나만의 또 다른 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연함과 굳건함이 공존한, 마치 운동 후 치맥과 같은 것!

신동식 Manager (Digital)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유연함과 굳건함이 공존하고, 앞뒤가 명확한 상태를 가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금요일 저녁에 운동 후 먹는 치맥이지 않을까요? 한 주 치열하게 일한 제게 주는 보상이자, 하루 마무리로 수행한 운동을 통해 명분을 쌓고 먹는 생맥주와 단백질 보충원의 프라이드 치킨 말입니다.

'프로'라 함은 '아마추어'의 영역을 넘어 기본기가 다져진 기본 상태에 더불어 통찰력을 통해 ①시간의 차원에서의 앞뒤, ②방향성 차원에서의 좌우, ③논리의 차원에서의 결단력 및 유연함을 갖춰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를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추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본인의 그릇에 맞춰 다양한 스위치를 조절해가면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저는 KPMG의 가치 중 'Courage', 'Together', 'For Better'가 제가 생각하는 프로의 길을 가는 지표가 된다 생각해요.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당신의 관점(觀點)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느낀다고 한다.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는 말도 있다. 관점(觀點)이란 한마디로 '생각의 각도'다. 개념의 정립이 지식이라면, 관점의 전환은 지혜의 경지다. "망치를 든 자에겐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천재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발상 vs 전환

발상의 전환이란 말은 하도 자주 들어서 진부해진 말이긴 하다. 발상의 전환은 미대 입시의 실기시험에서 보듯이 첫째는 새로운 생각의 발현, 둘째는 사고의 전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특별한 천재들의 기상천외한 발상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관념과 사고를 재구성해보려는 시도로 이루어진다.

<맹자>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을 바꾸어 보는 관점의 이동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본질과의 결혼이며, 익숙한 것과의 이혼이다. 기존 경영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 중에 'learning'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unlearning process', 즉 배운 것을 다시 버리는 탈학습(脫學習) 과정, 알았던 것을 역분해하는 과정이 작동해야 비로소 창조적 사고가 쏟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고정관념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자 기존 생각의 물구나무서기이다.

관점의 이동

학교 수업이든, 독서든, 타인과의 만남이든 간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건 결국 다양한 관점(perspective)이다. 르네상스 3대 천재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관점은 안내자이자 출입문이다. 관점 없이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라고 당시 예술가들에게 조언했다. 서양에서 창조적 사고를 갖기 위한 훈련 중 가장 강조되어온 것도 바로 관점의 이동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무릇 새로운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은 늘 관점의 이동이었다.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꾼 일대 사건들은 모두 이 방식으로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이루어낸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연 나라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개인의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외부를 바라보는 게 관찰(觀察)이라면, 내부를 바라보는 건 성찰(省察)이고, 이 두 가지를 넘나드는 게 통찰(洞察, insight)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고, 때론 역설적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아 큰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요컨대, 관점의 전환은 생각의 개안(開眼)이자 새로운 긍정이며, 지혜의 발견이다.

생각의 물구나무서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나라의 세계지도이다. 호주의 경우, 우리들이 보던 세계지도와는 정반대로 호주가 위에 한국은 밑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꾸로 지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듯이 호주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대한 대륙 국가라 알고 있던 고구려도 이런 식으로 보면 해양 국가로 보인다.

일본 나고야시에 위치한 히가시야마(東山) 동물원은 하루 종일 나무에서 지내지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코알라에서 착안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격을 기원하는 소위 '코알라 부적'을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과거 심각한 적자 탈출을 위한 돌파구를 찾던 영국항공(BA)이 착안해낸 비즈니스 클래스의 고객 두 사람이 앞뒤로 마주 보는, 일명 '거꾸로 가는 비행기'도 좋은 사례다.

사람이란 알고 보면 온갖 주관과 선입견, 편견으로 얼룩진 불합리한 존재다. 따지고 보면 인간들이 모여서 합의해낸 정상(正常)이란 말보다 비정상인 것은 없다. 뭐든지 거꾸로 보는 시각을 길러볼 수많은 필요가 있다. 늘 바라보던 관점을 바꿔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정상이라 생각했던 많은 것을 뒤집어 생각해볼 때 정상이 된다.

단, 긍정적으로 부정하라.

"경영자는 반드시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넷플릭스 창업자의 말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분노의 진짜 얼굴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화를 내기 전에 기억해야 할 사실 3가지에 관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다. 기쁨, 환희 등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우울, 화, 분노, 짜증,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자리할 일도 있다. 특히, 화는 순간의 감정으로 참지 못해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화를 잠재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누구나 감정 조절에 능숙해지고 싶다.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는 특히 '분노와 긴장'처럼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고 싶어 한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소리 지르기, 과격한 행동, 폭력처럼 눈에 띄는 방식으로 발산되는 경우가 많아 '분노 조절에 취약한 사람=감정 조절에 미성숙'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마련이다. 요즘 들어 부쩍 화를 참기가 어려워 분노조절장애인지 걱정이 된다면 다음 기준을 참고해보자.

정신건강의학에서 정의하는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기준'

- 재산, 신체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신체/언어폭력이 최근 3개월 동안 1주일에 2일 이상 발생
- 재산, 신체 손상을 동반하는 감정 폭발이 1년에 3번 이상 발생

위의 두 증상 중 하나를 포함해

1. 공격적인 행동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비해 상당히 부적절하다.
2. 폭발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목적이 없다.

에 해당되어야 분노조절장애 기준에 부합하며, 전문적 치료가 필요함.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정신건강의학에서 정의하는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기준에 부합할 정도라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스로 화를 자주 낸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앞서 살펴본 의학적 기준을 본다면 '내가 이 정도로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조절장애처럼 기능장애를 명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분노에 집착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에 데는 것은 너 자신이다"라는 부처의 말이 있다. 비정상적인 정도로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분노를 경험하고 특히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나면 스스로 유독 감정적이고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가라앉는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분노가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표현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안전하다.

『분노의 관리』의 저자인 심리학자 하워드 카시노프 박사는 '분노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2차 감정'이라고 했다. 2차 감정이란 상황에 반응하며 가장 먼저 생기는 원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대체 감정이다. 크고 작은 분노를 느끼는 상황을 짚어보자. 분명 어떻게 하라고 알려두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업무 처리한 팀원을 볼 때,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주문을 먼저 받을 때, 매번 약속 늦는 친구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행한 사람이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을 때…. 상황 자체로 공분을 일으키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분노가 치솟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 욕구에 대한 거절 혹은 무시를 당했을 때'와 관련이 많다.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억울함, 수치심, 무기력감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워 화를 낸다.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거친 제스처를 취하다 보면 순간 내가 강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확신이 든다. 화가 났다는 것은 나의 권리와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뜻이다.

분노 조절을 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의 강렬한 감정은 90초 이후에는 사라

진다는 것. **둘째,** 90초 후에 강렬한 감정은 사라지지만 '삭힌 화'는 여전히 마음속에 들끓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셋째,** 건강하게 화를 풀기 위해서는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꼭 알아야 한다는 것.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빠르게 말하고, 물건을 큰 소리로 탁탁 놓고, 문을 쾅 닫고 나감으로써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앞에 당신을 지켜보는 2만 명의 관중이 있어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가? 분노를 과격하게 표출하면 남는 것은 그 분노를 듣고 지켜본 관중들의 상처와 의아함뿐이다. 화를 내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들여다보자.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정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 'KES 2022'에서 ESG 행사 공동 주관

삼정KPMG가 '제53회 한국전자전(KES 2022)'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공동으로,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ESG 행사를 진행했다. 'KES 2022'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IT 산업 전시회이다.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으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다.

KEA와 'ESG 특별관' 공동 기획…전시 부스도 운영해

올해 'KES 2022'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8개국 450여 개 회사에서 참여, 총 1,200개 부스가 마련됐다. IT·전자 기업 부스 외에도 ESG 특별관이 운영됐다. 삼정KPMG는 KEA와 함께 ESG 특별관을 공동 기획했으며, 행사 기간 ESG 특별관 내 삼정KPMG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ESG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전자·IT 기업들에 ESG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ESG 경영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IT 산업 ESG 대전환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5일에는 전자·IT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IT 산업 ESG 대전환 세미나'를 KEA, KoDATA와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KEA 박청원 부회장의 인사말과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삼정KPMG 김진귀 전무가 첫 세션 발표를 맡아,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전했다. 김 전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공개초안)과 함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무적 이슈 및 국내 기업의 경영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후 S&P다우존스한국 김범석 대표가 새로운 ESG 투자 트렌드를 발표했으며, 웰로 신지현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는 중소·스타트업의 ESG를 주제로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사례와 소셜섹터 ESG 정책 동향, 비즈니스 밸류체인 ESG 적용 전략을 소개했다. 끝으로 산업·연구·평가·투자·컨설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 모여 국내 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한계점과 정부의 정책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SG 혁신 챌린지 대회' 후원 및 '삼정KPMG 대표이사상' 수여

10월 7일에는 전자·정보기술(IT)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확산과 ESG 기술·비즈니스 모델(BM) 발굴을 위한 '제1회 ESG 혁신 챌린지 대회'가 열렸다. KEA 주최로 열린 본 대회에 삼정KPMG는 KoDATA와 함께 후원은 물론,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상(KEA 회장상) - 버넥트, ▲우수상(삼정KPMG 대표이사상) - 세이프웨어, ▲우수상(KoDATA 대표이사상) - 데이터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삼정KPMG는 2008년 국내 회계·컨설팅 펌 중 최초로 ESG 비즈니스 그룹을 신설해, 현재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ESG 경영전략, ESG 신사업전략, ESG 정보공시, ESG 인증, ESG IT 시스템 구축 자문 등 기업들에 ESG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ontact: 이동석 부대표 dongseoklee@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사진으로 보는 KES 2022]

1,2. ESG 특별관에 마련된 삼정KPMG ESG 전시 부스
3. ESG 세미나 토론 세션에서 삼정KPMG 김진귀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4. ESG 세미나 현장 5.세미나 축사에 나선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의 모습
6.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우수상(삼정KPMG 대표이사상)을
세이프웨어에 시상하고 있다 7. ESG 혁신 챌린지 대회 기념 사진

1

2

3

4

5

6

7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제5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9명 표창 수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표창명	수상자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원덕 부대표
금융위원회 위원장	노상호 전무이사, 안창범 전무이사
국세청장	이상길 전무이사
금융감독원장	강인혜 전무이사, 김성배 상무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원정준 전무이사, 지동현 상무이사, 김선영 이사

지난 10월 31일 '제5회 회계의 날'을 맞이했다. '회계의 날'은 2017년 신(新)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등 민간 주관으로 만들어진 기념일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회계의 날'을 맞이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계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삼정KPMG에서는 총 9명이 표창을 받아 법인의 위상을 높였다.

KPMG, '아시아 최우수 리스크 컨설팅펌' 선정

KPMG가 리스크 관리 전문매체인 리스크닷넷(Risk.net)이 주최하는 '아시아 리스크 어워즈 2022(Asia Risk Awards 2022)'에서 '올해의 아시아 리스크 컨설팅펌'으로 선정됐다. KPMG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고객에 전문적이고 통찰력 있는 리스크 관리 자문과 함께 바젤 3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구축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KPMG는 각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탄력성(Operational resilience)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을 최적화하는 작업에도 크게 기여했다.

삼정KPMG RCS 리더인 박용수 부대표는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 확보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고객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면서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한경 '디지털금융 포럼 2022' 개최
"한국, 싱가포르처럼 금융업 키워 저성장 위기 돌파해야"

사진 출처: 한국경제

지난 10월 12일 삼정KPMG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금융 포럼 2022'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는 '금융의 빅블러: 금융 및 비금융사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는 기조 강연자로 나서, "빅테크, 핀테크도 이제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하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금리 고환율로 금융시장 환경이 어렵지만, 결국 핀테크가 장기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 세션에서 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와 삼정KPMG Digital본부의 조재박 부대표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조재박 부대표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증시 하락에도 홀로 선방했다며, 싱가포르의 핀테크 허브 전략에 대해 강조했다. 조 부대표는 "싱가포르는 '금융자원'이 천연자원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일찌감치 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핀테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한국에 싱가포르의 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대표는 "경기 둔화와 장기 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에 금융업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금융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이다.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긴 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더욱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모델' 세션에서는 카사코리아 예창완 대표, 삼정KPMG Digital 이지현 상무가 블록체인의 미래를 제시했다. 끝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의 사회로 금융위원회 김종훈 전자금융과장,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안인성 대표,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등 국내 최고의 핀테크 전문가들이 서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패널 토론도 마련됐다.

*Contact: 조재박 부대표 jaeparkjo@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한투증권, 중견기업 M&A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삼정KPMG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0월 5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M&A 및 자금조달(Financin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및 자금조달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케팅을 함께 수행한다. 양사는 M&A 뿐만 아니라 성장자본(Growth Capital) 조달과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시장에서도 협력하게 되며, 특히 M&A 이후 기업을 매각한 오너는 매각대금을 한국투자증권 초고액 자산가 전담 조직 GWM의 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매각부터 자산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 행사 개최

삼정KPMG가 서울 및 수도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2022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KPMG Global Cyber Day)' 행사를 개최했다. KPMG 글로벌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월 '국제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을 맞아 전 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참여하며, 2025년까지 5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인터넷을 탐색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이버 보안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삼정KPMG는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수원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에서는 삼정KPMG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 유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환경의 이슈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소셜 미디어 사용법을 설명했다.

*Contact: 김민수 전무 mkim9@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WCD(세계여성이사협회) 창립 6주년 기념 포럼’ 개최

지난 10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WCD 창립 6주년 기념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 기업과 사회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여성 이사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효과와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주한 유럽연합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대사가 ‘회원국의 여성 이사회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Women on Boards Policies in Member States and the Effects on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다. 진행은 삼정KPMG 노 원 전무가 맡았으며, 패널 토의는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박영숙 대표의 사회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 김규식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삼정KPMG는 WCD의 글로벌 리더 스폰서로서, WCD Korea의 발전을 위해 매년 후원하는 등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에는 업무 협약을 맺고,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상장 대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와 전현직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이사 양성 교육을 제공 중이다.

*Contact: 노 원 전무 wroh@kr.kpmg.com

[사랑나눔]

비대면 봉사활동 ‘트리케 이름표 제작’ 진행

삼정KPMG가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동방사회복지회와 협력해 트리케 이름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트리케 이름표는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귀여운 이름표로 손수 바느질로 제작해 완성한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및 가족 103명이 참가했으며, 정성으로 손바느질을 해 제작한 이름표 2종은 복지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김민주 S.Consultant(RCS)는 “요즘 부쩍 날이 좋은 계절이라, 주말에 남자친구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오붓하게 제작했다”며 “사랑나눔 봉사활동 덕분에 뜻깊은 데이트가 되었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 KPMG

NK BIZ FORUM

NK비즈포럼 제7기 모집

'NK비즈포럼'에 초대합니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정KPMG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삼정KPMG·중앙일보가 북한·경제 전문가는 물론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평화경제 시대, NK비즈포럼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NK비즈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기간

2022년 10월 27일 ~ 2023년 1월
매주 목요일 19:00 ~ 21:30 (만찬 포함)

장소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공동)

선발 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단체장
대북 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 있는 분

문의

nkbizforum.com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	02-2112-2743
이메일	seungpyohong@kr.kpmg.com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